

싱가포르 식품청(SFA) 신설에 따른 식품시장 전망

자카르타지사

식품청(SFA)의 등장과 관련 기관 조직개편

- 2019년 4월 1일부로 환경수자원부(MEWR) 산하 준정부기관인 싱가포르 식품청(Singapore Food Agency, SFA)이 신설된다.

- 이에 따라 농식품수의청(AVA), 보건과학청(HSA), 환경청(NEA) 등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던 식품관련 업무가 모두 이전될 예정이다. 농식품수의청(AVA)의 동물복지와 같은 동물관련 기능은 국가개발부 산하 국립공원청(NParks)으로 이전된다.

현재 기관별 식품관련 기능

농식품수의청 (AVA)

- 국가개발부(MND) 산하 기관
- 싱가포르 내 유통되는 육류, 어패류, 신선과일 및 채소, 신선·가공 달걀, 가공식품, 식기 등 관리
- 건강보조식품(Food-Health Products) 일부 담당

- 관련기관의 직원 1,150명의 이동도 예상되고 있다. 신설되는 식품청(SFA)은 농식품수의청(AVA)에서 600명, 환경청(NEA)에서 220명, 보건과학청(HSA)에서 30명이 이동하여 총 850명으로 구성된다.

- 농식품수의청(AVA)의 약 300명은 국립공원청(NParks)으로 이동하며, 농식품수의청(AVA)은 기관 폐쇄될 예정이다.

보건과학청 (HSA)

- 보건부(MOH) 산하 기관
- 농식품수의청에서 담당하는 품목 외 건강보조식품 관리

환경청 (NEA)

- 환경수자원부(MEWR) 산하 기관
- 싱가포르 내 레스토랑, 카페, 스낵바, 슈퍼마켓, 푸드트럭, 케이터링(Catering) 등 F&B 업체들의 영업허가 라이선싱, 식품위생 교육 및 관리 등 담당



NEA 빌딩

싱가포르 식품청 신설에 따른 조직개편 계획



싱가포르 식품청(SFA)의 역할

- 현재는 농식품수의청(AVA), 보건과학청(HSA), 환경청(NEA) 등 3개 기관에서 모두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, 앞으로는 싱가포르 식품청(SFA)에서 단독으로 식품안전 조사(Investigation)·집행(Enforcement), 확인(Assurance) 등을 통합 관리하게 된다.
- 식품청장을 맡게 될 Lim Kok Thai 현 농식품수의청장은 향후 식품청(SFA)이 식품매개 질병관리와 그에 따른 제품추적 및 리콜조치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.

식품안전 관리 및 수입허가 절차의 간소화 기대

- 이번 싱가포르 식품청(SFA) 신설로 인해 싱가포르내 식품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식품안전 문

제 역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. 기존에는 유통되는 식품의 원산지와 공급 및 수요관계 안에서의 최종 소비현황을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단일기관이 없어 식품안전이 제대로 유지되지 못했지만, 이제는 식품의 공급 및 안보에 대한 큰 그림을 한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.

- 또한, 식품수입허가 획득절차도 좀 더 간소화될 전망이다. 일반적으로 싱가포르는 식품수입 및 유통을 위해 별도의 인증을 요구하지 않았었지만, 건강보조식품 등 일부 품목의 경우 관련 업무가 농식품수의청(AVA)과 보건과학청(HSA)으로 분산돼 있어 수입허가 획득에 애로 사항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. 향후 싱가포르 식품청(SFA)에서 싱가포르 내 식품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하게 되면 식품안전 개선 및 행정절차 간소화가 기대된다.